

인 하이데라바드 젊은이들, 불교에 '풍당'

불교의 종주국 인도. 그러나 동시대 인도에는 불교유적이 많지 않은 것만은, 불교도 보다는 힌두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전 국민의 80%를 웃돈다.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도, 특히 젊고 유능한 불교도를 만나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인도 불교계에 청신호가 켜졌다.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주의 주도 하이데라바드(Hyderabad) 젊은이들 사이에 가장 주목받는 종교가 바로 '불교'라고 하니 말이다.

〈Indian Express〉지가 지난 10월 13일 "인도 젊은이들, 특히 하이데라바드 시의 젊은이들이 불교에 귀의하고 있다"며 "이들 젊은이들은 대학에서 정보통신기술 분야를 전공하고 있거나, 졸업 후 관련 기업에 갓 취업한 직장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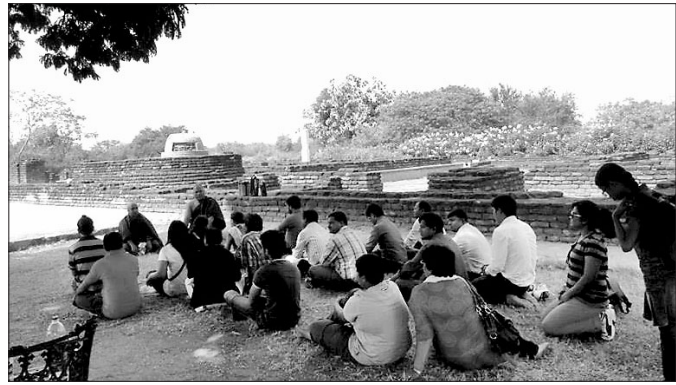
또한 〈Indian Express〉지는 최근 다국적 정보통신 회사에 취직한 드벤다르(Devendar·전자공학 전공) 씨의 말을 인용, "인도, 특히 하이데라바드 시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불교는 명상을 통해 자각을 돕는 가장 위대한 철학으로 알려지면서 주목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Indian Express〉지에 따르면, 이들 젊은이들은 대학에서 명상 동아리를 결성, 불교를 공부하기도 하고, '유바 불교 그룹'(Yuva Buddhist Group, 이하 YBG)에 가입, 불교 공부는 물론 포교에도 나서기도 한다.

YBG는 2012년 라지시 수타리(Rajesh



유바 불교 그룹(Yuva Buddhist Group, 이하 YBG) 회원들은 하이데라바드 시의 주요 사원에서 매주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사진은 YBG 회원들이 제타반 붓다 비하르(Jetavan Buddha Vihara)에서 법회를 봉행하는 모습.



유바 불교 그룹(Yuva Buddhist Group)은 지난해 12월 인도 크리슈나 강변의 나가르주나사가르(Nagarjunasagar)의 불교유적을 답사했다.

정보통신 분야 젊은이들... '유바불교그룹' 열성 회원으로

〈Indian Express〉지, "안드라프라데시 전역으로 확산될 것"

Suthari)를 중심으로 하이데라바드 시의 젊은이들이 한데 뭉쳐 'Follow Dharmma' 'Spread Dharmma' 'Build Sangha' 'Regular Meditation'을 모토로 설립된 불교단체이다. 현재 1,000여 회원을 거느린 YBG는 한마디로 '인도불교 부흥을 꾀하는 청년 불자 그룹'인 셈이다.

〈Indian Express〉지 "YBG 회원들은 하이데라바드 시의 주요 사원인 아난다 붓다 비하르(Ananda Buddha Vihara), 시타르타 붓다 비하르(Siddhartha Buddha Vihara), 제타반 붓다 비하르(Jetavan Buddha Vihara) 등에서 주말마다 법회를

봉행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며 "이는 하이데라바드 청·장년층 포교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풀이했다.

또한 "YBG 회원 중에는 텔루구(Telugu)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데 주목한 〈Indian Express〉지는 "인도에서 바라문 다음가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텔루구인은 대부분 힌두교도로 알려졌는데, 이들이 TBG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즉, '젊고 유망한 힌두교도'들이 불교로 개종하고 있는 정황이라는 것이다.

오스마니아대(Osmania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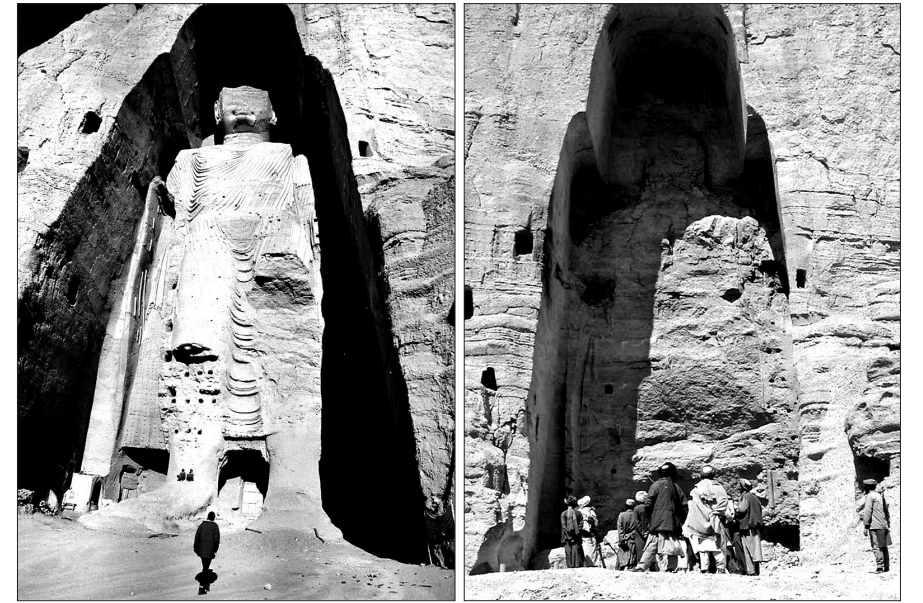
재학생 프라그야 초우한 씨는 "YBG 회원들 중에는 나를 비롯해 힌두교도 집안의 자녀들도 많다"며 "부모들 대부분 YBG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이지만, 모두들 불교를 배우는 데 열의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안마 유학생인 순리(Shoon Le) 씨는 "부처님 가르침을 서로 나누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동기들이 있어, 유학의 시름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특히 동년배들과 불교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YBG는 유학 생활의 안식처"라고 밝혔다.

그러나 〈Indian Express〉지는 "하이데라바드 불교부흥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YBG의 지도 법사 케마차르(Khemachara) 스님의 말을 인용, "젊은이들의 열의와 비교해 하이데라바드 시에서 스님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바미얀 석불... 재건 움직임 '가시화'

아프간 정부, 재건 추진 내년 1월 국제 콘퍼런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바미얀 석불(왼쪽)과 2011년 탈레반에 의해 파괴된 모습(오른쪽).

아프가니스탄 바미얀 석불을 재건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미얀 석불 재건을 반대해오던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가 최근 들어 입장을 누그러트리면서 지난 2001년 탈레반의 다이내마이트와 로켓포에 의해 파괴됐던 바미얀 석불이 복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015년 1월 바미얀 석불을 논의하는 대규모 국제 콘퍼런스가 일본 동경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바미얀 석불 재건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콘퍼런스에는 유네스코 관계자, 아프간 정부 대표, 문화재 복원 관련 전문가 등이 참

위기와 수난이 있었다.

하지만 석불을 완전히 파괴한 것은 2001년 탈레반이었다. 탈레반 지도자 몰라 무함마드 오마르는 국제사회의 호소에 불구하고 이단의 우상을 없앤다는 이유로 석불을 다이내마이트와 로켓포로 파괴해 국제사회의 경악하게 했다. 유네스코는 2003년 바미얀 석불을 '세계문화유산'과 '위험에 처한 세계문화유산'에 동시에 등재했다.

석불 재건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아프간 정부다.

10월 1일자 수피엘 보도에 따르면 '아프간 정부는 카불과 바미얀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사업까지 펼치고 있다. 석불을 재건할 경우 아프간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WSJ "석불 복원 가능성 높아져"

5년에 걸쳐 약 212억원 투입 예상

석하는 등 바미얀 석불의 미래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바미얀 석불 2개 중 1개만이라도 재건할 경우, 약 5년에 걸쳐 최소 2천만 달러(약 212억5600만 원)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미얀 석불은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북서쪽으로 약 230km 떨어진 바미얀 계곡의 사암 절벽에 자리잡고 있었던 2개의 초대형 불상이다. 507~544년경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며, 발발의 실크로드를 오가는 카라반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대한 석불의 모습이 장관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13세기 인도 무굴 제국과 18세기 페르시아 제국 군이 석불을 파괴하려고 시도 했다가 하면, 19세기 중반 아프간 왕 압두르 라흐만 칸이 시아파 하자라족 반란을 진압하는 와중에 석불의 얼굴을 밀어내는 만행을 저지르는 등 약 1500년 동안 많은

문화재 전문가들도 바미얀 석불 재건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독일의 문화재 전문가인 베르트 프라켄탈러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바미얀 석불 재건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독일 지역 책임자인 미카엘 페체트는 2013년 말 석불 지지대 공사를 하면서 아예 발 모양으로 만들어, 추후 석불 재건을 용이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당시 유네스코 측은 "지시대 공사만 허가해준 것이 석불의 발 모양으로 만들라는 의미는 아니다"며 공사팀을 비판했고, 이를 계기로 문화계에서는 "이참에 석불 재건을 놓고 진지하게 토론해보자"는 주장이 쏟아지기도 했다. 최근까지 유네스코는 "석불이 파괴된 것 자체도 역사"라면서 재건을 반대해왔다. WSJ는 "아프간 시민사회에서 벌써부터 석불 재건을 위한 모금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클라우드 펀딩으로 새롭게 태어나다

시드니 불교센터, 리-모델링 성료 ... 8일 '개축 기념 법회'

〈News Local〉지, "호주 종교계 첫 사례"

'클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이라는 다소 생소한 방법이 호주의 한 불교센터 리모델링에 큰 힘을 불어 넣었다.

〈News Local〉지는 10월 13일 "시드니 불교센터가 클라우드 펀딩으로 3만달러(약 2천8백만원)를 모금한 뒤 29일간의 리모델링 과정을 밟고, 지난 8일 300여 명의 법우들이 모인 가운데 '개축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고 보도했다.

클라우드 펀딩이란 '군중(crowd)으로부터 자금조달(funding)을 받는다'는 의미로 자금이 필요한 개인, 단체, 기업이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모금을 시작한 지 13일 만에 목표 금액 3만 달러를 모았다는 데 놀랐다"는 제레미 고드윈(Jeremy Godwin) 법사는 "클라우

드 펀딩으로 복지시설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는 TV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게 주효했다"며 "시드니 불교센터는 모금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드니 불교센터를 설립한 그는 현재까지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다.

고드윈 법사에 따르면, 10여 년 전 개원한 불교센터의 리모델링을 고민하던 중 클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법우들과 의논 끝에 '붓다 블리츠(Buddha Blitz) 캠페인'을 기획했다.

붓다 블리츠 캠페인은 클라우드 펀딩 전문회사인 '스타트썸굿(Startsomegood)'의 사이트에서 시드니 불교센터의 목적, 현황, 활동 등을 소개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모금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불교센터 재적 법우들의 노력봉사도 캠페인 진



개원 10년 만에 새롭게 단장한 '시드니 불교센터' 전경.

행의 중요한 몫을 담당했다.

제레미 고드윈 법사는 "지난 10여 년간 맺어온 수많은 법연이 있어 '붓다 블리츠' 캠페인이 성공할 수 있었다"며 "먼 곳에 있는 법우들은 후원금을 보내왔고, 가까이 있는 법우들은 연차와 휴일을 아낌없이 투자했다"고 말했다.

붓다 블리츠 캠페인을 맡아 진행한 제리 하이드(Cheryl Hyde) 씨는 "대중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한 사례"라



지난 8일 봉행된 시드니 불교센터 '개축 기념 법회'를 준비했던 자원봉사자들.

며 "시드니 불교센터는 후원자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시드니 모든 주민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 Local〉지는 "시드니 불교센터의 '붓다 블리츠 캠페인'은 시드니 종교계에서 클라우드 펀딩의 성공적인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며 "이는 앞으로 종교 시설 리모델링에 클라우드 펀딩이 적극 수용될 것이라는 전망을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기반방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기giban

나만의 원색세계 기giban

기giban
정신 안정과 명상,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주는 기giban

기giban
정신 안정과 명상,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주는 기giban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뚝이 늘 빠진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입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www.hyunbulshop.com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과 불멸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